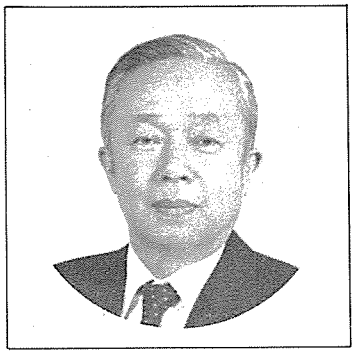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國民意識속에 창조·능률·합리의



朴 泰 源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會長〉

大望의 1990년대 첫해를 맞이하는 庚午年 새해 아침에 존경하는 姜英勳 國務總理를 모시고 科學技術人 新年朝餐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科學技術發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多忙하심에도 이른 아침에 이 자리에 臨席하여 주신 姜英勳 國務總理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元老·先輩·同僚 科學技術人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80년대는 政治·經濟·社會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試鍊이 있었습니다만 온 國民이 합심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民主和合의 새로운 里程表를 세운 뜻깊은 시기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國家發展과 經濟成長의 원동력이 科學技術의 혁신과 진흥에 있음을 깊이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 百萬 科學技術人의 정성어린 노고가 뒷받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1980년대초 GNP대비 研究開發投資가 0.5%에 불과하던 것을 1986년에는 1.8%, 1989년에는 2.5%로 높히고 2000년에는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바, 이와 같이 國家全體的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가 가속화됨으로써 研究風土의 정착과 對外 競爭力을 배양키 위한 技術力이 크게 신장되고 있음은 政府의 科學技術振興 의지가 第6共和國에 즈음하여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世界는 科學技術을 國家發展의

研究開發과 과학기술진흥에 精進해야"

精神이 심어질 수 있는 科學技術 풍토조성에 앞장

핵심적 목표로 정하고 각자의 부족한 자원은 물론 치열한 國際競爭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先進國의 技術保護 장벽과 시장개방 압력 등 여러가지 강박요인이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사정이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科學技術人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創造와 革新의 자세로 研究開發과 科學技術 진흥에 총력을 기울여 정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낙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990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科學技術人은 國家의 百年大計를 내다보면서 2000년대 先進國 진입이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跳躍과 團合을 기약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國民意識 속에 창조·능률·합리의 정신이 심어질 수 있는 科學技術 風土가 조성되고 경제성장과 복지향상 및 환경개선을 이룩하는 요체로서의 科學技術로 승화되면서 科學者와 技術者 그리고 技能人이 인정받는 사회가 이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학회를 중심으로 國內外 共同研究를 비롯한 學術活動이 활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基礎研究는 물론 高級人力 養成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産業技術開發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憲法에 명시된 科學振興 의지에 따라 科學技術處의 격상문제와 대정부 民間 특히 大學·研究所·企業의 역할 등이 재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科學技術處를 비롯한 關係部處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은 물론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政界·言論界·學界·企業과 研究所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이해 그리고 후원 아래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1990년대가 우리 國家와 民族에게 희망찬 歷史의 場으로 장식되기를 모든 科學技術人과 함께 기원하면서 여러분과 家庭에 萬福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